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집중 전주시, 기업과의 '동행 프로그램' 시작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 분야 중점 추진 방향 제시

전주시가 2026년 새해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하수 관리와 전문적인 수질 관리에 집중하는 상·하수도 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인택)는 지난 20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신뢰받는 상수도 운영체계 구축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수질안전 관리 강화로 안정성 확보 △체계적 하수관리로 생활환경 개선 등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한 '2026년도 상·하수도 분야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맑은물 공급사업'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앞서 시행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비 지역의 유수율을 약 85%까지 끌어올린 데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1278억 원을 투입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주지역 노후 급·배수관 156km 중 121km를 교체 완료했으며, 시는 올해 서산동과 삼전동 일원 35km 구간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중화산동과 평화동 등 12개 동에 대한 정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올해 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도시설 관리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시는 상수도 수질안전 강화를 통해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노후 배수지와 취수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상·하수도 분야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관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용담호 상수원부터 정수지·배수지, 각 가정의 수도꼭지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하수 관리를 통해 시민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한다.

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9·10분구) 등 4개 처리 구역 17개 분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4개 사업을 포함해 총 262.4km의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올해 333억 원을 투입한다.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정비에 대한 대수선 및 개량 사업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대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방류수 수질 기

준 준수 △하수처리 효율 제고 △노후 시설의 선제적 유지보수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실시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만금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수도요금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과 이사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요금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도계량기 동파나 누수 발생 시 신속한 안내와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수도행정을 구현해 시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인택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올해는 시민들이 먹는 물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위해 'IT기업 간담회' 갖고 소통

전주시가 지역 내 지속가능한 산학연 생태계 기틀 마련을 위해 지역 기업들과 동행키로 했다.

시는 '동행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 20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관계자와 지역 IT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IT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동행 프로그램'은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정기적인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시는 앞으로도 전주지역 기업·연구기관·대학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가능한 사안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연구원과 IT기업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연구기관·기



전주시는 '동행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 20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관계자와 지역 IT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IT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시에 △항토기업 지원 방안 △피지컬 AI 등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 △지역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문의했다.

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우범기 시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등 중점 IT산업의 미래를 일구는 기업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전주시는 전주를 대한민국 대표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강한 경제 전주'로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쉽고 즐겁게 배우는 브레이킹

상반기 전주브레이킹스쿨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전주시와 (사)라스트포인(대표 조성국)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운영되는 상반기 전주브레이킹스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주브레이킹스쿨'은 전복을 대표하는 비보이 전문예술법인인 (사)라스트포인과 전주시가 브레이킹 저변 확대와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운영하는 비보이문화학교로, 시민 누구나 브레이킹을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내용은 △기초 리듬트레이닝 △브레이킹 기본 동작 △신체 능력 강화 △바다동작(플로워 댄스) 등 입문자도 따라 하기 쉽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1회 오후 7시 운영한다. 수업은 청소년반(10세~19세, 화요일)과 성인취미반(20세~45세, 수요일)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반별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다.

교육은 전주역 앞 찻마중길에 위치한 전주브레이킹스쿨 비보이연습공간(백제대로825 지하)에서 이뤄

진다.

교육 신청은 라스트포인스쿨 누리집(www.lastfoneschool.com)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 인원 총인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27-1474)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국 (사)라스트포인 대표는 "누구나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으로, 전주에서 브레이킹을 일상 속 스포츠이자 문화로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오는 5월 19번째 비보이그랑프리올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브레이킹을 비롯한 청소년 문화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새 학기 감염병 주의 당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학생들의 단체생활 중 확산될 우려가 큰 호흡기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일 보건소에 따르면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17일 유행주기가 발령된 이후 여전히 유행 중으로, 의사환자수도 2026년 6주(2월 1일~7일) 외래환자도 1000명 당 52.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3.9명) 대비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167.5명), 13~18

세(81.2명)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인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매년 봄(4월~6월)에 환자 발생이 많아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개학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는 발진이나 발열 등의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신속히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 등교·등원(학원 포함)을 하지 않

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는 또 신학기 시작되면 단체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수반되는 세균성이질과 노로바이러스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집단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새로운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빠트린 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 처분 제도' 도입

전주시가 직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경우 처벌 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처벌 중심에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내부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신분상 처분인 훈계·주의를 대신하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과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조기 적응을 돕고, 심리적 위축 없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과실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 대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근 '전주

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체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대체 처분의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으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훈계에 해당하는 경우 총 15시간,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총 10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이행 기간은 감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처분을 받게 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